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 지원(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 유아 양육자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서 규 원** · 이 병 인***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a Caregiver Coaching-Home based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Program*

Seo, Gyu Won** · Lee, Byoung In***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their meaning among caregivers who participated in the caregiver coaching-home-based positive behavior support program.

[Method] To this end, three caregivers, whos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ed a private integrated daycare center in U City, Gyeonggi Province,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during the introductory stage of each program session. Data collection involved multifaceted data collection, including intervention data and individual interview data used in the program, and the collected data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procedure. As a result of the data analysis, two upper categories, nine lower categories, and 18 main contents were deriv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awareness and changes in parenting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by participating in the home-based positive behavior support program through caregiver coaching. Second, in terms of parenting efficacy, the research participants recognized their roles as communicators, educators, caregivers, and positive behavior supporters, and made efforts to change. Third,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awareness and changes over time, such as difficulties, confrontations, challenges, achievements, and changes.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implementation plans for effective caregiver coaching by finding out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caregivers who participated in the caregiver coaching-home-based positive behavior support program.

Key Words : Caregiver Coaching, Home-Based Positive Behavior Support,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ceptions, Qualitative Research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Doctoral student,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byoungil@dankook.ac.k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에는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배성현, 이병인, 2014) 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이하 PBS)은 이러한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증거 기반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로 제시되고 있다(Gore et al., 2013). PBS는 단순히 문제행동의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능 평가(functional assessment)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접근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하게 다룬다(Wolkorte, Houwelingen, & Kroezen, 2019).

PBS는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즉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Dunlap, Harrower, & Fox, 2005). 특히,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자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중요한 환경적 맥락의 일부로 여겨진다. 가족은 생활 환경, 구조, 가족 기능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이병인, 2012),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가족 관계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김영숙, 2010; 이병인, 2012; 이상복, 2009). 따라서 장애 자녀에게 가장 밀접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 유아의 발달을 증진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의 당위성은 국내에 마련된 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8월에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 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 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제24조에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7년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제36조에서 각각 장애아동의 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성별,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지원은 가족의 요구(needs), 관심(concerns), 우선순위(priorities), 자원(resources)등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집단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 가족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병인, 조현근, 2010; 조현근, 이병인, 2014).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장애 유아 부모들은 장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양육 기술, 상호작용 방법, 정서 지원, 특히, 문제행동 개선 등의 실제적인 생활지도와 발달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었다(강경숙, 2016; 구신실, 2014; 김수현, 이병인, 2020; 김지수, 박지연, 2017; 이병인, 2012; 전해인, 이명희, 2014; 황순영, 차세진, 강승희, 김정은, 정은영, 2022). 이를 통해 장애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지원이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김건희, 2023).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 증재와 관련하여 부모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구 기반의 실제 중 하나로 '코칭(coaching)'이론이 있다. 이전에 부모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도미향, 김근주, 이경주, 2019). 이에 여러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정대현, 조명옥, 곽연미, 2014) 새로 등장한 부모교육의 방법 중 하나가 '부모 코칭'이다(우동옥, 김응자, 2020).

국내에서 수행된 코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 코칭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도미향, 한민아, 2021; 박성의, 도미향, 2019; 이은주, 박창규, 신흥규, 2022), 장애 유아의 자기 조절력, 공감 능력, 정서 지능, 행복감(김양진, 도미향, 2022; 신은연, 김미애, 2018; 이종임, 도미향, 2021; 정대현 외, 2014), 부모의 양육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등(오안나, 2022; 우동옥, 김응자, 2020)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칭 개념을 PBS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조정연과 신윤희(2019)는 PBS를 부모에게 코칭하여 초등학교 장애 자녀의 이식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장애 자녀의 이식행동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선희와 백은희(2023)의 연구에서는 텔레코칭을 활용한 가정 기반 PBS 중재를 적용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가정에 영상 송출 기기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코칭을 실시함으로써 코칭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Krick Oborn 과 Johnson(2015)은 부모가 가정에서 중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코칭 전략의 중요성과 이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전략이 가족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관련 선행연

구를 검토한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가 중재 과정에 일부만 참여하거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부모 또는 양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PBS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의 경험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연구가 대부분이며, 장애 유아와 함께 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들이 어떠한 인식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현재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PBS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양육자 대상 PBS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U시에 위치한 민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장애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 3명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8시간 이상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

둘째, 청력, 시력에 문제가 없는 양육자

셋째, 이전에 코칭 참여 경험이 없는 양육자

넷째, PC,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양육자

다섯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양육자

이상의 기준에 따라 3명의 양육자가 선정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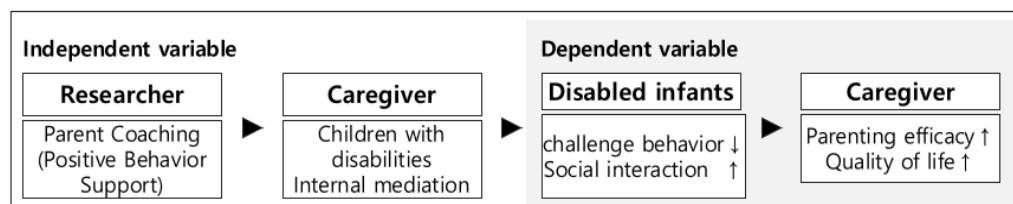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Age	Job	Relationship	Child's gender (Age)	Disability	Family members
A	Female	early 40s	Housewife	Mother	Male (3)	Developmental delay	Husband, Two sons
B	Female	late 30s	Employee	Mother	Male (4)	Autism spectrum disorder	Husband, Only son
C	Female	early 40s	Housewife	Mother	Female (4)	Autism spectrum disorder	Husband, Only daughter

2.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프로그램은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양육자 코칭을 통해 가정 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중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개하며, 이 과정 안에서 양육자에게 주제와 관련된 행동 지원 기술들을 코칭 전략을 사용하여 전달하였다. 〈그림 1〉은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중재의 개요이다.



〈Figure 1〉 Caregiver Coaching-An Overview of a Home-Based Positive Behavior Support Intervention

2) 프로그램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7단계 절차의 양육자 코칭을 통한 배경 사건 및 선행사건 전략, 대체 행동 교수 전략, 후속 결과 전략을 포함하는 가정 기반 PBS이며, 종속변인은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양육자의 양육 효능감 및 삶의 질이다. 이 연구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프로그램이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일대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baseline across subjects)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실험 기간은 2024년 2월 4주부터 5월 1주까지 총 10주이다. 2024년 2월 4주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협력팀을 구성하여 양육자 대상 사전 검사와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기초선, 중재, 유지, 일반화를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각 대상자의 중재 종료 2주 뒤인 4월 중순부터 5월 1주까지 유지 관찰 후 양육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 양육자와 학급 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기가 끝나는 7월까지 2주에 1회씩 추수 지도를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자 코칭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중재 자료와 면담 자료 등 다면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전체 회기인 14회기 중 도입 단계를 활용하여 20분씩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에서 활용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는 <표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 Guide

Category	Question
Participant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der, Age, Place of work, Career, Family members, Information abou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service experience, Research participation experience
Experiences and changes at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ve you practiced mediation at home? How was it running the mediation? Have you noticed any changes in your child?
Corrections and Improv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at was difficulties? Is there anything that needs to be corrected?
Coaching impre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w do you feel about coaching? Do you have any questions?

1) 중재 자료

장애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다면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양육자의 자기 점검표, 양육자와 연구자의 중재 일지, 양

육자 반성적 평가 자료, 연구자의 관찰 및 피드백 자료 등 중재 시 작성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양육자의 경험에 대한 세부 탐색을 하였다. 이를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중재 자료를 정리하였다.

2) 면담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중재를 실행하는 동안 매 회기를 시작하고 20분간 수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가정에서 관찰된 장애 유아의 행동, 중재 경험과 변화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양육자의 동의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 자료로 정리하였다. 전체 회기 중 면담을 진행한 시간은 양육자 별로 280~300분으로 총 860분 정도였다.

3) 전사본 작성

녹음된 파일의 내용은 당일 저녁 휴대폰의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문서로 변환하였고, 한글 2002 프로그램으로 옮긴 후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전사 자료를 작성하였다. 면담 전사 자료는 A4 기본 용지(A4 규격(여백 위, 아래 30mm, 오른쪽 30mm, 왼쪽 30mm) 내 글자 크기 10pt, 줄 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로 작성하여)에 전사하였고, 총 136쪽이 작성되었다. 특수교육학 박사과정생 1인과 함께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를 대조하면서 각 전사본 내용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 내용 분석 방법 중 귀납적 내용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한 주제로 부호화, 범주화, 추상화하는 과정이다(배성현, 이병인, 2016; McMillan & Schumacher, 2000; Stainback & Stainback, 1988).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 자료와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유사한 주요 내용과 하위요인을 찾아 의미 단위마다 주제어를 붙여 부호화하였다. 둘째, 전사본과 부호화 자료를 3회에 걸쳐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나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호화된 자료 중 유사한 속성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는 내용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본과 연구 결과 요약본을 발송하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사되었는지, 연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임의로 추가된 부분이 없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및 면담을 진행하였던 연구자와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1명과 석사과정 1명이 2차에 걸쳐 중재 및 전사 자료와 녹취 파일의 일치도를 점검함으로써 전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특수교육과 교수 1인,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1인, 장애아 보육교사 경력 7년 이상의 교사 1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해석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넷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시 면담 내용이 녹음 된다는 것과 개인 정보와 면담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 연구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는 면담을 중단할 수 있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고지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 3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전사해서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 범주, 18개의 주요 내용이 도출되었다. 의미 범주표는 <표 3>과 같다.

〈Table 3〉 Table of Semantic Category

Upper category	Subcategory	Main contents
1. Perception of parenting efficacy	1) Communicator	Understand your child's needs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your children
	2) Educator	Understand current development level and characteristics
		Appropriate educational direction
	3) Caregiver	Obtain comprehensive parenting information
		Confidence in parenting
	4) Positive controller	Identify the cause of the behavior
		Learn how to support positive behavior
2. Perception of quality of life	1) Difficulty	Psychological burden and anxiety
		Lack of information about education and support
	2) Confrontation	Child's disabilities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Realistic problems
	3) Challenge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s
		Implement positive behavior support
	4) Outcome	Parental achievements
		Infant achievements
	5) Change	Perspectives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spectives on life

1. 양육 효능감에 대한 인식 및 변화

1) 의사소통자

(1) 자녀의 요구 이해

양육자들은 자녀의 행동이 단순한 문제행동이 아니라,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자녀의 행동을 의미 없는 문제행동으로 여겼으나, 양육자 코칭을 통해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가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는 최선의 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 가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아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런데 아이가 떼 부릴 때 아이는 원하는 것이 있는 건데 말하기 어려워서 울음으

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머리가 멍했어요. 아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생각 못했지? 하면서 그때부터 선생님과 마음을 열고 소통한 거 같아요(양육자 A).

다른 애들과 달라서 속상했어요. 이제는 속상하다고 생각되던 부분이 ◇◇이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를 부정했던 마음에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증재에 참여했던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양육자 C).

(2) 자녀와의 소통 방법 습득

양육자들은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점차 습득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자녀의 다양한 행동 양상을 상황별로 면밀히 관찰하며, 그 행동이 의미하는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은 자녀의 의사소통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증재를 가정에서 매번 실행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가 문제행동을 할 때 저는 강하게만 하면 말을 잘 듣길래 그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려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맞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심하게 폭발할 때 선생님이 알려준대로 하다보니 □□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양육자 B).

선생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문제행동을 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결과를 기록하다보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혼내기만 하던 것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이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관계가 좋아졌어요(양육자 C).

2) 교육자

(1) 현재 발달 수준과 특성 파악

양육자들은 코칭을 통해 자녀를 다각적으로 관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가정에서 안 내받은 관찰 및 지원 방법을 적용한 결과, 자녀의 행동 및 놀이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자녀의 현재 발달 수준과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양육자들은 자녀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저는 아직도 아니길 바라지만 ○○이의 발달이 느리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은 그냥 늦는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도 저는 속으로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요. 피하려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연구에 참여하면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 거 같아요.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다 ○○이와 비슷하더라고요(양육자 A).

사달라면 사주고, 안아달라고 하면 다 안아줬었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양육자 C).

(2) 적절한 교육의 방향성

양육자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 특정 교육이 자녀에게 필요하거나 적절한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자들은 자녀의 발달 요구에 맞는 교육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코칭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양육? 교육 방식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어요. □□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많이 해주려고만 했는데 □□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겠어요(양육자 B).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많아서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도 있었고, 완전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나를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센터도요(양육자 C).

3) 양육자

(1) 통합적인 양육 정보 획득

양육자들은 가정, 기관, 외부 장소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필요한 양육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자들은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육 정보를 확보하고, 자녀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정보가 나오니까, 그것만 봤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생각도 못하고요...(중략)...공식적으로 믿고 볼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서 좋고, 활용을 많이 할 거 같아요(양육자 A).

연구를 통해 원래 알고 지내던 같은 반 친구 엄마와도 계속 만나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만 하던 엄마와도 그렇게 왕래가 잦진 않지만, 서로 누구 엄

마인지 알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뭔가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우리 아이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으니까 궁금한 것도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어요(양육자 B).

(2) 양육에 대한 자신감

양육자들은 다양한 양육 정보를 습득하고, 실질적인 양육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양육자들은 자녀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신이 없었는데, 궁금했던 거를 질문하면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양육자 A).

아이에 대한 기대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코칭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달라지니까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못한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 같아요. 이제는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면서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아직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양육자 C).

4) 긍정적인 행동 지원자

(1) 행동의 원인 파악

양육자들은 자녀의 행동이 모두 특정한 이유가 있다는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의 문제행동이 가정에서 사실 별거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도 제 말은 들어서요. 그런데 선생님 만나고 다시 관찰을 해보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게요. 그래도 코칭 받으면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아 그동안 ○○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직접 행동을 관찰하고 증재를 같이 실천해 보았으니까 많은 도움이 된 거 같아요(양육자 A).

그동안 집에서 보이는 행동들 때문에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해야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그렸어요. 며칠은 그랬는데, 알게 되어서 좋은 거 같아요(양육자 C).

(2) 긍정적인 행동 지원 방법 습득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자녀의 행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코칭 실습 과정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양육자들은 다양한 문제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의 행동 변화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변화까지도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문제행동이 나오면 힘들긴 한데 이제는 그래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의 문제행동으로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는데 조금 편안해졌어요(양육자 A).

우선 아이가 울거나 밀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동안은 무조건 안아주고, 들어주고 했는데, 그게 아이의 행동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 때문에 행동이 더 심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양육자 B).

선생님이란 실제 연극처럼 연습하니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뭐가 잘되고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방법도 알고 싶어요(양육자 C).

2.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변화

1) 어려움

(1) 심리적 부담 및 불안

양육자들은 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그리고 문제행동 지도 방법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과 불안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자들은 장애 자녀의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 간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 그리고 자신감 부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동생을 보면 알아서 잘 따라하고 배우는 거 같은데 ○○이에게는 뭔가 하나씩 다 알려줘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아이를 받아들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나 가족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고, 혼란스러워요(양육자 A).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일관성 없는 지도를 하게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게 “이거 꼭 해야 해”라고

강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때는 ◇◇가 문제행동이 심한 날에는 그냥 조용히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양육자 C).

(2)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양육자들은 현재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재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에는 대부분 만족하지만, 하원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어떤 치료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자녀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집에서 뭐를 하자고 하면 발로 차고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단호하게만 했어요. 저도 자료나 공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막막함과 힘들이가 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첫 아이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랐어요.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맘카페 같은 데서 보면 어디가 좋더라 어디는 별로더라 말이 다 다르고 혼란스러웠어요(양육자 A).

저는 □□를 양육하면서 열심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센터에서도 선생님마다 영역이 달라서 같은 행동을 가지고도 제한해라, 계속 해주게 해라 같이 말이 다르고요(양육자 B).

◇◇이를 낳고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저 혼자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어려워요. 작년부터 통합 대상이 되어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는데, 1년이 지나고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 같아요(양육자 C).

2) 직면

(1) 자녀의 장애 및 발달 특성

양육자들은 연구자와의 면담 및 코칭을 통해 점차적으로 장애 자녀의 발달 수준과 행동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자녀의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에 대해 과도한 걱정이나 회피의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와 교육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에서 일과 중에 아주 다양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는데, 연구자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니까 상황에 대해 내 관점에서만이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좋았어요(양육자 B).

◇◇의 문제행동으로 자주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전할 때가 많은데, 행동지원팀 구성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의 특성을 아시고 함께 나누고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 연구에 참여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자주 할 수 있어 좋아요(양육자 C).

(2) 현실적인 문제

양육자들은 장애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가족 간의 양육 태도, 어린이집에서의 생활, 치료실에서의 경험 등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고민을 나누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방향에 대한 조언을 원하였다.

연구자 선생님을 통해 ○○이의 어린이집 생활,, 집에서는 잘하는데 어린이집에서의 피드백이 달라서 힘들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어요(양육자 A).

◇◇가 자주 울고 문제행동을 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얼른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에 보였던 거 같아요. (양육자 C).

3) 도전

(1)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가정에서 양육자들은 장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행동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귀찮은 행동이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행동으로 여겼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였다.

○○이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해달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요. 눈 맞춤, 손 잡기 하나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게요(양육자 A).

우리 □□가 매일 물건을 돌리고 입에 넣고 하는 게 심심해서, 재미있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조건 안 돼 하지마 하면서 단호하게 하였는데 다른 방법으로 놀이를 전환해 주거나 소통해야 할 거 같아요(양육자 B).

(2)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양육자들은 PBS 중재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교육과 중재가 연계되어 이루어졌으며, 실제 가정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양육자들은 중재의 효과뿐만 아니라 아쉬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아쉬움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 자녀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일반 아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인 내가 이야기만 하면 무엇이든 될 것 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대가 컸나 봐요. 기대치가 많이 높았고, 기간이 짧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어요(양육자 A).

부정적인 의미로 “안 돼”라고만 하고 아이들이 행동결과에 야단도 쳤는데... 그게 아닌 조금 더 풀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게 미리 전달해야 함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저 자신도 모르게, 제지하며 그냥 ‘안 돼’가 아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험해지는 거야” 등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양육자 B).

4) 성과

(1) 양육자 성과

양육자들은 교육과 PBS 중재를 실행한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제는 자녀의 행동을 단순한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절한 교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며 가르쳐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언어 대신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긍정적인 행동이나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기술도 습득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배웠던 문제행동 기능평가와 대체 행동 교수에 대해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는데 문제행동 기능을 알게 되고, 대체 행동을 시도한 이런 기회가 저에게 큰 변화였어요(양육자 A).

부모로서 □□를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또한 □□의 수준에 맞는 활동과 대화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그 아이의 건강 상태와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고 상황에 따라 아이가 하루 일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달라졌어요(양육자 B).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안 돼, 하지마’ 경고식의 말로 단답식으로 말하게 되었다면, 지금은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어’ 등의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주고 ◇◇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제 자신의 언어 사용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게 돼요. 의식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해요(양육자 C).

(2) 유아 성과

양육자들은 PBS를 통해 자녀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에서 자녀는 하나의 일과나 놀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약속을 잘 이행하고 동생이나 친숙한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함께하는 놀이 과정 속에서 눈 맞춤, 놀잇감 조작, 상호작용 등 의미 있는 행동들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전반적인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집에서 ○○이와 함께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먼저, “○○이 신났다, 옷는다, ○○이가 뭐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바라보기도 해요. 저 또한 ○○이 마음을 읽어주려는 모습들, 대신 얘기해주려는 모습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양육자 A).

맞아요. 집에서 나눠서 같이 하는 거야. ‘함께, 같이’ 이런 이야기를 가족 사이에서 은연중에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같이하자’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자녀도 가족도 달라지고 있어요(양육자 B).

자주 보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거든요. 먼저 와서 말을 걸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계속 보기도 하고,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주변에서 계속 같이 있더라고요(양육자 C).

5) 변화

(1) 장애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장애 자녀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교육관이나 가치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처음 생각했던 막연함,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지금은 이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에 참여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게 된 것 같아요(양육자 A).

이제는 아이가 거부를 하면 ‘그래그래 하지마 알았어’가 아니라 그 아이의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해 보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 그 아이도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양육자 C).

(2) 삶을 바라보는 관점

양육자들은 교육과 PBS 중재 실행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고, 자신의 관점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중재를 진행하며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양육자 자신도 함께 변화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데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행하면서 양육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도 많고 공부도 더 해야겠지만 ○○이만을 놓고 그 아이를 대했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조금 더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아이의 수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양육자 A).

그냥 제가 다 해주다가 ‘□□도 해봐야지’하며 시도해보는 것이 많아졌어요. □□가 못하더라도 시도해보게 돼요. 서로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양육자 B).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양육자 코칭 및 가정 기반 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U시에 위치한 민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장애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양육자 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자료와 개별 면담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PBS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양육자들은 양육 효능감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자 3명의 행동 추이에 따르면, 중재 초기에는 장애 유아에게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언어적 촉진의 형태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연구의 목적과 코칭 훈련 후의 부담이 양육자에게 유아에 대한 요구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해 장애 유아에게 요구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양육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반응이

나 행동, 언어 표현 등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면서 양육자들의 양육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이라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장애 유아를 관찰하고 지켜보며 기다려 주는 교수 행동은 우연 교수에 필수적이었고, 양육자들은 중재 중반 이후 이러한 교수 행동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장애 유아의 정서적인 반응을 묘사하는 자연스러운 강화도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육자 행동의 변화는 중재 과정에서 특정 전략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장애 유아에 대한 적절한 교수와 반응 기회를 포착하는 지원 기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양육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자연적 상황 속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지지한다. 자연적 상황을 활용한 코칭에 참여한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 방법과(최미정, 박지연, 2019)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고은숙, 정연순, 선우현, 2020; 이후민, 박지연, 2020),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김지수, 박지연, 2017; 최미정, 박지연, 2019).

둘째, 양육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자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일과를 교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매일 반복되는 가정 일과는 장애 유아의 행동 지도를 위한 가장 반복적이고 자연스러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앞서 진행된 사전 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애 유아는 반복되는 일과에서도 지시를 따르기 어려워하고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Horn, et al., 2000). 양육자들은 장애 유아의 일과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하거나 행동 지도 내용을 저조하게 제공하였으며, 장애 유아들은 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과를 보내거나 혼자 놀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양육자 코칭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양육자들은 장애 자녀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 전략을 구상하거나 적용하는 데 특별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복적인 일과 속에서 중재를 적용하고 장애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촉진하고 자연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중재 전략의 실행에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자 자신과 장애 유아의 행동을 촬영한 장면을 보며 연구자의 피드백과 함께 자기 평가를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양육자들은 자신의 행동 변화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양육자 훈련 마지막 회기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가정 일과에 대한 행동 지원 목표 설정은 양육자의 장애 유아에 대한 개별적인 목표 관련 교수 기회를 일과에 통합하여 학습 기회로 구체화한 여러 선행연구(김지영, 이소현, 2003; 이수정, 이소현 2005; Kohler, Anthony, Steighner, & Hoyson, 2001; Wolery et al., 2002)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동기 및 코칭 이론은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체

계의 강점과 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이 양육자들의 긍정적 인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양육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수시로 소통하며, 양육자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존중하였다. 또한, 그 노력으로 인해 나타난 작은 변화들을 양육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애 자녀의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가족의 강점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언(최복천, 임수경, 유영준, 2014)을 고려할 때, 양육자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강점을 깨닫고 연구자로부터 충분한 지지, 인정, 존중을 받는 본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양육자의 장애 자녀 양육 및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장애가 있는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는 양육자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장애 자녀의 선호도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 대부분은 과거에 자녀의 문제행동 수정이나 또래 발달을 따라가는 데 중점을 두어 지원했기 때문에, 자녀의 선호도와 흥미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양육자는 연구자가 자녀에게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양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양육 방식과 행동 지원 방법을 익힘으로써 양육자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육자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을 받는 경험이 양육자와 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최미정, 박지연, 2019)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양육자 코칭은 각 양육자와 자녀의 가정 상황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과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프로그램 운영 시 양육자에게 양육 방법이나 행동 지원 방법을 코칭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는 양육자가 자녀의 행동 관찰을 양육자 코칭의 전략으로 활용한 연구에서 관찰 전략이 부모의 능동적인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한 선행 연구(Artis, Watson, & Crais, 2022)와 같은 맥락이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양육자 코칭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각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수정하면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자 코칭을 직접 실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록하고 분석한 후 다음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특정 기관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는 양육자 코칭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 자녀를 둔 양육자는 비장애 자녀의 양육자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므로(최경숙, 서미경, 2021), 이들을 위한 양육자 코칭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양육자를 직접적으로 코칭하는 전문가의 개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에서는 이 연구에서의 중재처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양육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 코칭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rtis, J., Watson, L. R., & Crais, E. R. (2022). Parent coaching behaviors used within an adapted responsive teaching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44*(4), 331-352.
- Bae, S. H. (2016). A Study on Development & Effects of Collaborative Teacher Support Programs based on Team Learning Behavior. Doctoral thesis, Dankook University.
[배성현 (2016). 팀 학습행동 기반의 협력적 교사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e, S. H., & Lee, B. I. (2014). Effect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Problem Behaviors in Infa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1), 69-95.
[배성현, 이병인 (2014). 긍정적 행동 지원이 통합된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4**(1), 69-95.]
- Cho, H. G., & Lee, B. I.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Related to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Special Education Journal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2), 99-127.
[조현근, 이병인 (2014). 장애아동 가족 관련 국내·외 연구의 동향 비교분석 -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99-127.]
- Cho, J. Y., & Shin, Y. H. (2019). Changes in Positive Behavior Support Through Mother Coaching on Transplant Behavior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in

-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35*(3), 367-386.
- [조정연, 신윤희 (2019). 어머니 코칭을 통한 긍정적행동지원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이식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효능감에 미치는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35**(3), 367-386. <http://doi.org/10.33770/JEBD.35.3.18>.]
- Choi, B. C., Lim, S. K., & Yoo, Y. J.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Positive Contribution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Parental Parenting Burden. *Rehabilitation and Welfare, 18*(3), 73-93.
- [최복천, 임수경, 유영준 (2014). 장애아동의 긍정적 기여가 부모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8**(3), 73-93.]
- Choi, K. S., & Seo, M. K. (2021). A Study of the Perceptual Coerc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Experienced by Service Providers and Family in the Community. *Journal of Future Social Welfare, 12*(2), 179-210.
- [최경숙, 서미경. (2021).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제공자와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정신장애인의 지각된 강요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2**(2), 179-210. <http://doi.org/10.22836/kaswpr.2021.12.2.179>]
- Choi, M. J., & Park, J. Y. (2019). Effects of Sensory Play Program with Mother 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 of Mothers of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3), 1-24.
- [최미정, 박지연 (2019). 어머니와 함께하는 감각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9**(3), 1-24. <http://doi.org/10.21214/kecse.2019.19.3.1>.]
- Do, M. H., & Han, M. A. (2021). An Exploratory Study of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vist Theory to Parental Coaching.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8*(1), 5-23.
- [도미향, 한민아 (2021). 구성주의이론의 부모코칭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18**(1), 5-23.]
- Do, M. H., Kim, G. J., & Lee, K. K.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arental Coaching Competency Scales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Coaching Research, 12*(2), 135-154.
- [도미향, 김근주, 이경주 (2019). 영유아기 부모코칭역량 척도 개발 연구. **코칭연구, 12**(2), 135-154.]
- Dunlap, G., Harrower, J., & Fox, L. (2005).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problem behaviors. *Individualized supports for students with problem behaviors, 25-46*.
- Gore, N. J., McGill, P., Toogood, S., Allen, D., Hughes, J. C., Baker, P., Hastings, R. P., Noone, S. J., & Denne, L. D. (2013). Definition and scope for positive behaviour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Positive Behavioural Support, 3*(2), 14-23.
- Hwang, S. Y., Cha, S. J., Kang, S. H., Kim, J. U., & Jung, E. Y. (2022). Exploring

Parenting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38(1), 173-197.

[황순영, 차세진, 강승희, 김정은, 정은영 (2022).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방안 탐색. **정서행동장애연구**, 38(1), 173-197. <http://doi.org/10.33770/JEBD.38.1.8>.]

Jeon, H. I., & Lee, M. H. (2014). Statu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arents' Needs.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KADD)*, 18(1), 1-23.

[전혜인, 이명희 (2014). 장애자녀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태 및 부모의 요구. **발달장애연구**, 18(1), 1-23.]

Jung, D. H., Cho, M. O., & Kwak, Y. M. (2014).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coaching capacity and infants' self-regulation and empath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Research*, 18(2), 83-100.

[정대현, 조명옥, 곽연미 (2014). 부모코칭역량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공감능력간의 상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83-100.]

Kang, K. S. (2016). Survey of parents' difficulties and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and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grated Education*, 11(2), 217-247.

[강경숙 (2016).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부모의 어려움과 삶의 질 인식 및 욕구 조사. **통합교육연구**, 11(2), 217-247. <http://doi.org/10.26592/ksie.2016.11.2.217>.]

Kim, J. S., & Park, J. Y. (2017). Effects of a Home Visiting Parenting Coaching Program on Parenting Efficacy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Mothers of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3), 1-31.

[김지수, 박지연 (2017). 가정방문 양육코칭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영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7(3), 1-31.]

Kim, J. Y., & Lee, S. H. (2003). Effect of Teaching Social Initiation Behaviors Using Natural Interventions on Social Interaction of Disabled and Normal Infants.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8(3), 253-274.

[김지영, 이소현 (2003). 자연적 중재를 이용한 사회적 시작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8(3), 253-274.]

Kim, K. H. (202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Parents of Disabled Infants - Focusing on Korean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4(3), 299-332.

[김건희 (2023).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4(3), 299-332. <http://doi.org/10.19049/JSPED.2023.24.3.12>.]

Kim, S. H., & Lee, B. I. (2020). Percep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of Specialized Child Care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Family Support Programs for Infants and Toddlers in Speci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4), 181-215.

[김수현, 이병인 (2020).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부모

- 와 교사의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0(4), 181-215.]
- Kim, Y. J., & Do, M. H. (2022). Effects of mothers' coaching competence and parenting efficacy on infants' empath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9(3), 75-98.]
- [김양진, 도미향 (2022).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 유아의 자기조절력 매개효과 -. **부모교육연구**, 19(3), 75-98.]
- Kim, Y. S. (2010). Needs for Family Support System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Quality of Lif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395-418.
- [김영숙 (2010). 장애아가족의 가족지원제도의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395-418.]
- Ko, E. S., Jeong, Y. S., & Sun, W. H. (2020). A Case Study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with Anxious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Christian Counseling Association*, 31(4), 39-68.
- [고은숙, 정연순, 선우현 (2020). 불안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PCIT) 사례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4), 39-68. <https://doi.org/10.23909/KJCC.2020.11.31.4.39>]
- Kohler, F. W., Anthony, L. J., Steighner, S. A., & Hoyson, M. (2001). Teaching social interaction skills in the integrated preschool: An examination of naturalistic tactic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2), 93-103.
- Koo, S. S. (2014). Perceptions and Needs of Teachers and Parents for Counseling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search on Health Disorders of Retardation(formerly Redund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57(4), 159-180.
- [구신실 (2014). 장애학생 부모상담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4), 159-180.]
- Krick Oborn, K. M., & Johnson, L. D. (2015). Coaching via electronic performance feedback to support home visitors' use of caregiver coaching strategi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35(3), 157-169. <https://doi.org/10.1177/0271121415592411>.
- Lee, B. I.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Needs for Family Support and Counseling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14(3), 217-238.
- [이병인 (2012). 특수교육과 관련된 가족지원 및 상담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연구. **지적장애연구**, 14(3), 217-238.]
- Lee, B. I., & Cho, H. G. (2010). Exploring the content and utilization of family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the needs of familie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2), 215-250.
- [이병인, 조현근 (2010). 발달지체 영·유아 가족의 요구에 따른 가족지원 프로그램 내용구성 및 활용방안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215-250.]
- Lee, E. J., Park, C. K., & Shin, H. L. (2022).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 Coaching Program for Parent Empowerment. *Journal of Exchange Analysis and Counseling*, 12(2), 47-73.

[이은주, 박창규, 신흥규 (2022).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교류분석상담연구**, 12(2), 47-73.]

Lee, H. M., & Park, J. Y. (2020). Effects of Play Coaching Using Internet Cafes on Mother's Responsive Interaction Behavior and Mother-Chil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3), 57-82.

[이후민, 박지연 (2020).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놀이코칭이 어머니의 반응적 상호작용행동과 어머니-장애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3), 57-82. <http://doi.org/10.21214/kecse.2020.20.3.57>.]

Lee, J. I., & Do, M. H. (2021).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oaching Competency on Infant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8(4), 5-25.

[이종임, 도미향 (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8(4), 5-25.]

Lee, S. B. (2009). A Field Survey Study for the Composition of a Family Support Program for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s-Focusing on the Demographic Distribution of Infa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5(3), 381-401.

[이상복 (2009). 발달지체유아가족지원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현장 조사 연구 - 행동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인구학적 분포를 중심으로 - **정서·행동장애연구**, 25(3), 381-401.]

Lee, S. H., & Paik, E. H. (2023). Effects of Home-Based Positive Behavior Support with Telecoaching on Aggressive Behavior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in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39(1), 57-95.

[이선희, 백은희 (2023).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9(1), 57-95. <http://doi.org/10.33770/JEBD.39.1.3>]

Lee, S. J., & Lee, S. H. (2005). Effects of Social-initiated Behavioral Interventions Using Activity-Skill Diagrams on Peer Interaction in Developmentally Retarded Infan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1(2), 213-237.

[이수정, 이소현 (2005). 활동-기술 도표를 이용한 사회적 시작행동 중재가 발달지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1(2), 213-237.]

McMillan, J. H., & Schumacher, S. (2000). *Research in education: A conceptual introduction*(5th ed.). Addison Wesley Longma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Special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교육인적자원부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7).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 [보건복지부 (200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Welfare Support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보건복지부 (20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Oh, A. N. (2022).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aching capacity and infants' empathy.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Child Care and Welfare, 26(3)*, 297-326.
- [오안나 (2022).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6(3)**, 297-326.]
- Park, S. U., & Do, M. H. (2017).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Empowerment Parent Coaching Programs for Mother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Journal of Coaching Research, 10(3)*, 51-72.
- [박성의, 도미향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강화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 **코칭연구, 10(3)**, 51-72.]
- Shin, E. Y., & Kim, M. A. (2018). The Effect of Mother's Coaching Capacity on Infants' Happiness: Focusing on the Autonomy Modulating Effect of Infants: Focusing on the Autonomy Modulating Effect of Infa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ren's Media, 17(3)*, 417-445.
- [신은연, 김미애 (2018).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유아의 자율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어린이미디어연구, 17(3)**, 215-246.]
- Stainback, S., & Stainback, W. (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Wolery, M., Anthony, L., Caldwell, N. K., Snyder, E. D., & Morgante, J. D. (2002). Embedding and distributing constant time delay in circle time and transition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2(1)*, 14-25.
- Wolkorte, R., Houwelingen, I., & Kroezen, M. (2019). Challenging behaviors: Views and preference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2(6)*, 1421-1427. <https://doi.org/10.1111/jar.12631>.
- Woo, D. O., & Kim, E. J. (2020). The Effect of Parental Coaching Competence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Competenc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7(1)*, 21-32.
- [우동욱, 김응자 (2020)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21-32.]

<국문 초록>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 지원(PBS)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 유아 양육자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서 규 원 · 이 병 인

[목적] 본 연구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경기도 U시에 위치한 민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장애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양육자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회기마다 도입 단계에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중재 자료 및 개별 면담 자료 등 다면적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내용 분석 절차에 따라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2개의 상위 범주, 9개의 하위 범주와 18개의 주요 내용이 도출되었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자 코칭을 통한 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양육 효능감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변화를 경험하였다. 둘째, 양육 효능감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는 의사소통자, 교육자, 양육자, 긍정적인 행동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셋째, 삶의 질의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는 어려움, 직면, 도전, 성과, 변화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및 변화를 보여주었다. **[결론]** 본 연구는 양육자 코칭-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양육자 코칭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양육자 코칭, 가정 기반 긍정적 행동 지원, 장애 유아, 인식, 질적 연구

논문 접수(Received): 2024. 08. 08. / 심사 시작(Examined): 2024. 08. 08. / 게재 확정(Accepted): 2024. 09. 09.